

[ 사회 ]

# ‘무인도 파괴자’ 염소를 잡아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일부 무인도에 방목 돼 있는 염소가 오는 2010년까지 ‘퇴출’ 된다. 염소가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을 위협하는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섬의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방목 염소를 제거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50여곳 800여마리 방목 생태계 황폐화 극심...2010년까지 완전 퇴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관할지역은 신안군 흑산·하의·도초·비금면과 진도군 조도·임회면 등 6개면 유·무인도 203개 섬(무인도 159곳). 이중 신안군 비금면 우세도·도초면 석항도, 진도군 조도면 남태기도·백야도·행금도 등 50여 개 무인도에 800여 마리의 염소가 방목 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섬에 내막이고 있는 염소는 천적이 없는 상태로 봄철에 새싹을 먹어치우고, 겨울철에는 식물뿌리와 나무껍질까지 없애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 염소 분비물은 ▲수질(지하수)과 토양 오염 유발 ▲전염병 위험성 ▲메탄과 암모니아 가스 방출 등 2차적인 생태 교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김용무)는 지자체·경찰·주민대표 등으로 ‘국립공원 방목가축 포획협의회’를 구성하고 무인도

내 염소 처리 방안을 협의해 왔다. 서부사무소 측은 1차로 오는 25~26일 포획 결과 인력을 투입, 신안군 흑산면 1번지 ‘가도’(6만2천579㎡)에 방목 된 염소를 포획해 주인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이번 포획작업에는 ▲흑산면 사무소 ▲흑산 해군 해상전담감시부대 ▲목포경찰서 흑산파출소 ▲해양경찰 흑산파출소 ▲흑산 이장단 ▲야생동물보호협회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지역주민 등이 공동참여한다. 서부사무소 김용무 소장은 “이들 무인도에 대한 생태조사 결과, 염소에 의한 식생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매년 2천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 염소를 섬에서 추방해 중 다양성을 확보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 광주교대 내년 정원 26명 줄어

### 전국 교대, 편입생 포함 506명 대폭 감소

광주교대 입학 정원이 지난해보다 26명 줄어드는 등 전국 교대가 506명을 덜 뽑는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광주교대의 2008년도 입학 정원은 452명으로 2007년 478명에 비해 5.4%(26명) 줄었다. 광주교대는 지난 2003~2005년 3년간 전형에서 입학 정원 520명이 유지돼 오다 지난 2006년(478명)부터 줄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는 5천718명에서 5천408명으로 310명(5.4%) 감소했다. 이는 편입생을 포함할 때 506명(8.1%)이 줄어든 것이다. 광주교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대는 올해 편입생 모집을 하지 않으며, 경인교대(40명)와 춘천교대(20명)에서만 편입생 전형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대 입학 정원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연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학년도 학교별 입학생 정원은 ▲서울교대 504명 ▲부산교대 533명 ▲대구교대 533명 ▲경인교대 843명 ▲춘천교대 467명 ▲청주교대 403명 ▲광주교대 499명 ▲전주교대는 385명 ▲진주교대 469명 ▲제주교대 139명 ▲한국교원대 140명 ▲이화여대 41명 등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광주·전남 산재병원 12곳 진료비 허위·과잉 청구

광주·전남 산재재해 지정 의료기관 12곳이 올 들어 진료비 등을 허위 또는 과잉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광주 5곳·전남 7곳 등 12개 병원이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거짓으로 타냈다. 광주에선 ▲Y신경외과 963만원(허위·부정청구 544만원) ▲H의원 724만원(허위 697만원) ▲G병원 646만원(허위 326만원) ▲M병원 440만원(허위 350만원) ▲Y병원 205만원(허위 72만원) 등 5곳이 허위·부정·과잉 청구로 진료비를 받았다. 전남지역은 ▲광양 S병원 1천397만원(허위·부정청구 451만원) ▲해남 H병원 792만원(허위 210만원) ▲순천 O병원 1천172만원(허위 148만원) ▲여수 H병원 230만원(허위 67만원) 등 4곳이 허위·부정·과잉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들은 통원환자를 입원환자로 기재하거나 외출·박 기간에도 식대와 입원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허위 또는 과잉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병원들은 허위·부정·과잉 청구 액수 등에 따라 ▲경고 ▲진료제한 3개월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배일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재정 악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산재재해 지정 의료기관이 허위·부정·과잉 청구한 금액은 2005년 26억원, 2006년 33억원, 올 8월 말 현재 20억원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깊어가는 가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광주	맑음	10~23°C
주요	맑음	12~23°C
여수	맑음	14~21°C
안동	맑음	10~22°C
대구	맑음	7~23°C
부산	맑음	6~23°C
인천	맑음	6~23°C
대전	맑음	7~24°C
전주	맑음	7~24°C
충청	맑음	8~23°C
강릉	맑음	9~23°C
울릉도	맑음	9~23°C
독도	맑음	6~23°C
제주	맑음	15~19°C

10월 24일 (음 9월 14일)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0.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0:07 썰물 < 05:41  
여수 밀물 < 07:32 썰물 < 01:16

▲해돋이 06:46 ▲해질 17:47 ▲달돋이 16:23 ▲달질 04:08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날씨						
최저/최고	12/20	10/19	9/19	9/18	8/17	7/17



시름의 가을 들녘 가을걷이가 한창인 전남 농촌 들녘이 깊은 시름에 젖어있다. 농민들은 올해 수확한 나라의 품질이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한다.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이 줄어들자 정부당국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합평군 학교원=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도청사 이번엔 외벽 변색

## 녹화 현상...부실시공 의혹

전남도청 신청사가 준공 2년여 만에 물이 샌 데 이어 최근에는 일부 벽면의 대리석 색깔이 녹색으로 변해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 부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 신청사 가운데 대리석 1천400여 장으로 치장된 민원동의 북쪽 벽면 중앙 660

㎡가 부분적으로 마치 이끼가 낀 것처럼 녹색으로 변해 흉물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대리석에 빗물이 스며들어 햇빛을 받지 못해 이끼가 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저질 석재 사용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우기 때 잦은 비로 인해 석분에 습도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끼가 끼었거나 표면에 화학변화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공사인 G건설 측은 이 같은 현상이 하자가 아니라 주변 산에서 날아온 이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에는 1층 윤선도 홀의 천장 부분인 6층 채광창에 설치된 유리외 콘크리트 이음새에 균열이 생겨 빗물이 새는 바람에 보수 공사를 벌이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망향휴게소 난동 사건 노조원 12명 신원 확인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난동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23일 CCTV를 통해 난동을 부린 30여 명의 노조원 중 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난동을 부린 노조원 중 6명

이 망향휴게소 직원이고 다른 6명은 화물연대 노조 전국지부의 간부급 인사들이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소환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난동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오후 망향휴게소에 들어온 화물연대 노조원 전세버스 10여 대가 부산·경남·전북·충북 지역 등의 번호판을 달고 있었던 점을 확인, 해당지역 경찰청에 수사공조를 요청했다. 연방노

# 올겨울 눈 적고 건조

## 강수량 평년보다 적어

올해 12월은 평년보다 눈이 적게 내리는 건조한 겨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는 12월은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평년(15~55mm)보다 적은 강수량을 보일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찬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도 있겠지만 기온은 평년(-5~9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또 “내년 1월에는 대

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 변화폭이 크겠지만, 평년과 비슷한 기온(-8~6도)과 강수량(15~78mm)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다음달 중순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2~16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또 “내년 1월에는 대

## 공석 광주과기원장 후보 3명으로 압축

공석 중인 광주 과학기술원 신임 원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광주과기원은 최근 ‘원장 추천위원회’(위원장 인관 삼성종합기술원 이사장)를 열고 5명 후보 가운데 김기협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김도한 달고 있었던 점을 확인, 해당지역 경찰청에 수사공조를 요청했다. 연방노

## 산행안내

10월 24일(수) 10월 25일(목) 10월 26일(금) 10월 27일(토) 10월 28일(일) 10월 29일(월) 10월 30일(화) 10월 31일(수)

10월 24일(수) 10월 25일(목) 10월 26일(금) 10월 27일(토) 10월 28일(일) 10월 29일(월) 10월 30일(화) 10월 31일(수)

10월 24일(수) 10월 25일(목) 10월 26일(금) 10월 27일(토) 10월 28일(일) 10월 29일(월) 10월 30일(화) 10월 31일(수)

## 12월 15일 시험착륙!!

# ‘부동산대출중개사’가 뜬다!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협회법(자치규)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돈이 급하게 필요한 당신! 돈이 없어도 돈이 되는 당신! 돈이 많아도 돈이 되는 당신!

12월 15일 시험착륙!!